

광주 남구,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산타 모집했더니...

50일 동안 수많은 후원자 문 두드렸다

아동 소원 성취, 후원금 2,650만원 쌓여 지역사회 구성원 성원에 사업 추진 탄력

“정말 많은 분께서 산타클로스를 자처하면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광주 남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인 한여름 크리스마스 사업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고 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은 민선 7기 때부터 남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및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특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아동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허리 아픈 할머니와 어머니를 위해 안마기가 필요하거나, 돼지고기를 눈치 보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는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성장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산타클로스 후원자를 직접 모집했는데 뜻밖의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5월부터 50일간 무려 개인 후원자 42명과 7개 단체, 아동병원 및 식당과 학원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장에서 산타클로스 활동을 통해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며, 이 기간에 모은 후원금만 2,650만원에 달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후원이 이어지면서



관내 저소득층 아동 100명은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루게 됐으며, 목표 후원금이었던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남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을 개최, 저소득층 아동의 소원 성취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후원자들과 구청 직원들은 8월

중순까지 산타로 변신해 각 가정 등지를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모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선물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서울 청소년들, 영암의 매력에 푹 빠져 반했습다

1박2일로 민속씨름·월출산기찬랜드 등서 즐거운 시간

영암군청소년센터(센터장 김형수)가 23~25일 월출산기찬랜드 등에 서울시 청소년 40명을 초청해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캠프’를 열었다. 이번 교류캠프는 2016년 영암군과 서울시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서 이어진 것으로, 양 지역 청소년들이 도시와 농촌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는 자리.

캠프 참여 청소년들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월출산기찬랜드, 영암군충박물관, 트로트가요센터 등을 견학하고 민속씨름을 배우고, 물놀이했다.

아울러 생활도자기, 무화과 휘낭시에

만들기, 바비큐파티 등 체험으로 오감으로 영암을 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신진과학기술고 1학년 고태원 학생은 “월출산기찬랜드, 영암군충박물관 등 영암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내가 무화과로 만든 휘낭시에는 너무 맛있었다”고 기뻐했다.

영암군청소년센터는 이번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캠프 이외에도 달빛생태도시 영암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촌일손돕기 온힘

전 실국 800여명 구슬땀... 시군·군부대·농협·자원봉사 등 동참

전라남도가 지난 폭우에 따른 피해지역 복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전 직원이 나서 피해복구 긴급 일손돕기에 나섰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20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4개 시군에서 농작물과 시설 7천700여ha가 침수되고, 특히 토마토·딸기·멜론 등 시설원예에 피해가 집중해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손돕기는 지난 집

중 폭우로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입었으나, 일손 부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농축산식품국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전 실국에서 800여 직원이 참여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피해복구 작업을 시행한다.

또한 시군에서도 군부대, 농협,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지금까지 4천여 명



이 투입돼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복구작업에 앞서 참여자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호우가 끝

난 후 다시 시작된 폭염에 대응, 작업자의 생수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준비해 현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함평군 나산면, 침수 피해 가구에 긴급 복구 지원 나서

나산면 복지기동대, 가구·생활용품 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 펼쳐

전남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 가구에 긴급 복구 활동을 펼치며 신속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27일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주택 내부가 침수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거실과 방 등 주택 내부 전체가 침수돼 가구와 생활용품 대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됐으며, 빗물과 함께 흙탕물이 밀려들어 위생 문제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나산면 복지기동대는 현장에 긴급 지원을 나가 침수된 가전제품과 침구류, 가구 등 오염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주택 내외부에 쌓인 흙과 오염물을 제거하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석 나산면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준 복지기동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해 재난 상황에 취약한 이웃을 신속한 대응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강진군 ‘군수와 함께하는 직원공감 특콘서트’ 개최

후생복지 정책 공유와 청렴문화 확산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

강진군이 지난 24일 새롭게 단장한 백운동전시장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직원공감 특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강진군의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작 경험을 공유하며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정작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특콘서트는 ▲강진군 후생복지 제도 안내 ▲실제 정작 경험 공유 ▲민선8기 군정 철학 및 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 ▲오픈채팅

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제안 수렴 등 직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듣는 행정’의 진정성을 담았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백운동전시장에서 열린 첫 공식 소통 행사로, 단순한 전달 중심 설명회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체감도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강진에서 살아본 이야기’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군수와의 현장 질의



응답, 청렴 다짐의 시간도 마련되어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이번 특콘서트를 통해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과 더불어 MZ세대 공직자와의 소통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2025 장성군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